

■ 한미사진미술관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 단체전'으로
《정승원 · 정지현》 전시 개최

■ 설치와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동시대 사진작가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엮어낸 전시



전 시 소 개

한미사진미술관은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의 단체전으로 《정승원·정지현》 전시를 MoPS 한미사진미술관 삼청별관에서 오는 6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한다. 한국 동시대 사진을 대변하는 30~40대 작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은 개인전, 단체전, 연계 출판물, 해외 리뷰 프로그램 참가 등 다방면으로 작가 지원을 이어왔다. 이 전시는 각각 런던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승원(1992~)과 정지현(1983~)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동시대 사진을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살펴본다.



Memories Full of Forgetting #03, Installation view, 2017
©정승원Seungwon JUNG

정승원 작가의 휘어지고 늘어진 사진은 기억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표현한다. 그는 사진 이미지를 프린트한 직물에서 실을 가닥가닥 풀어내어 사진의 물리적 원형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Memories Full of Forgetting》(2017~2018)연작과 《Bark》(2018) 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흐릿해지고 왜곡되어 사실과는 다른 기억의 상태를 사진과 직물을 이용해 가시화한다. 《Memories Full of Forgetting》에서 직물은 정승원이 자신의 기억을 옮기고, 덧붙이고, 삭제하는 공간이 된다. 천에서 뽑아낸 실오라기들이 빈 공간과 간극을 만들면서 온전했던 직물 위에는 사라져가는 기억처럼 변형된 이미지만 남아있다.

정승원의 작업 태도는 《Bark》에서 한 층 더 구체화된다. 작가는 직물에서 늘어뜨린 실을 다시 바느질해 흐려진 기억들이 모여 왜곡된 채 고정되는 기억의 불완전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정승원 작업의 백미는 직물의 유연성을 강조한 설치다. 그는 작업을 자석으로 고정시키고, 천장에 매달고, 작업 아래에 돌을 다는 등 기억의 가변성을 시각화하는 동시에 직물과 만나 더욱 유연해진 사진의 매체적 가변성을 제안한다.

한편, 정지현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공간의 스펙터클 이면에 가려진 모든 '중간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신도시 건설 현장, 주요 건축물의 복원 현장 등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작업하며 그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의 면면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왔다.



Construction Site 10, 2012 ©정지현Jihyun JUNG

건축 과정에 직접 개입해 현장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중간 과정을 노출시키는 정지현의 작업 태도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세 연작 《Construction Site》(2012), 《Construct》(2017), 《Reconstruct》(2020)를 통해서 구체화한다. 《Construction Site》는 그가 직접 개입 행위를 시작한 첫 작업이다. 자재물과 폐기물을 공사가 진행 중인 공간의 맥락과 전혀 무관한 오브제로 구성하여, 그 공간과 구조물에 일시적인 변형을 시도한다. 이러한 작가의 개입 행위는 신축 공사현장과 한때는 서울의 근대화를 상징했던 건물의 복원 현장에서 작업한 《Construct》와 《Reconstruct》에서 더욱 심화된다. 작가는 매끈하고 평면적인 최신 건축 소재를 거친 표면과 병치시켜,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볼 수 없는 현대건축의 가변성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정지현의 개입 행위는 설치와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순식간에 한 도시를 형성하고 파괴하는 스펙터클의 가려진 속살을 드러낸다.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 단체전 《정승원·정지현》 전시는 사진 이미지의 제작 과정 중 작가의 개입 행위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낸 한국 동시대

사진의 확장된 흐름과 동향을 소개한다. 두 작가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왜곡되는 기억이나 지나치도록 빠른 도시공간의 변화 과정처럼, 그동안 간과해온 '모든 숨겨진 과정의 이면'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아티스트 토크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연계 사진집으로 출간될 35번째 Camera Work 총서 『정승원·정지현』은 전시작 외에 작가들의 더 많은 작업을 밀도 있게 소개한다. 이 전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별도의 개막 행사 없이 진행한다. (문의: 02-722-1315, photo@photomuseu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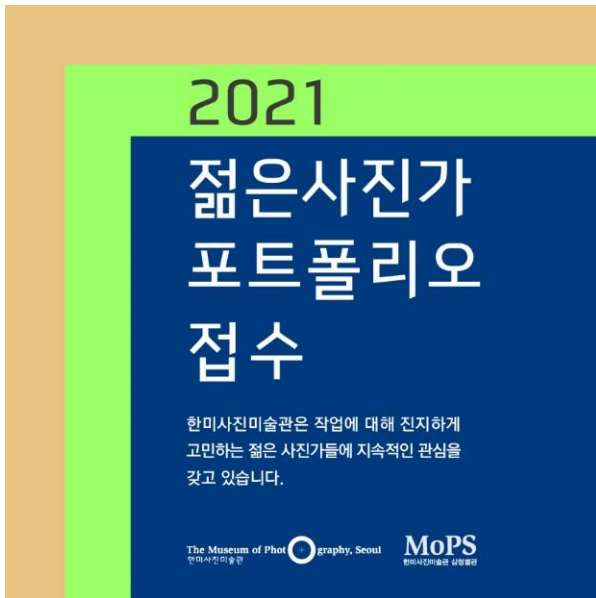
■ 작가소개

정승원은 서울 출생으로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2019년 런던대학교 Slade School of Fine Art에서 MFA 학위를 취득했다. 정승원은 인간의 기억의 불완전함을 사진과 직물을 이용해 표현한다. 작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의 시간을 추적한 초기 연작 《Kyung Ae》(2016)를 시작으로 인간의 기억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왔다. 직물이라는 가변적인 소재에 사진을 프린트하고 작품에 물리적 변형을 가하여 다층적인 의미를 더한다. 대표 연작으로는 《Memories Full of Forgetting》(2017~2018), 《Bark》(2018), 《Digital Strata》(2019) 등이 있다. 2018년 UCL Art Museum 입주작가, 2019년 런던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TPG New Talent 등에 선정되었으며, 『LensCulture』, 『The Guardians』, 『X=Y Magazine』 등 다양한 주요 해외 매체에서 소개되며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정지현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생인 그는 소위 '아파트 키드'로 분류되는 세대이다. 2000년대 중반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낸 잠실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것을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기록하며 도시 공간에 대한 관심을 확장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 건설 현장 등지에서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대표 연작으로 《Construction Site》(2012), 《Demolition Site》(2013), 《Reconstruction Site》(2015), 《Construct》(2017)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제6회 KT&G 상상마당 '올해의 최종 작가', 2015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입주작가, 이후 2018년에는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

MoPS Talent Portfolio 2021






한미사진미술관은 한국 동시대 사진을 이끌어갈 차세대 작가들에게 지속적인 후원과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미사진미술관의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역량 있는 30~40대 작가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원 채널을 제공하고자 공개 접수 받은 포트폴리오를 일련의 선발 과정을 거쳐 개인전, 단체전, 연계 출판, 해외 리뷰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다방면으로 작가 지원을 모색해왔다.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연말까지 접수된 90여 개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총 2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6인의 작가(김박현정, 김신욱, 심학철, 안종현, 정승원, 정지현)를 선정했다. 1차 선정 과정에서는 디지털 포트폴리오 심사를, 2차 선정 과정에서는 3인의 리뷰어(강홍구, 신수진, 최봉림)을 초청해 작가 프리젠테이션과 개별 리뷰를 실시해 심사에 공정성과 공신력을 더했다.

심사 결과 6인의 작가들에게 현 시점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칭하였다.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의 개인전 부문에는 심학철, 단체전에는 정승원과 정지현, 해외 포트폴리오 리뷰(FotoFest Meeting Place 2021) 참가 지원에는 김박현정, 김신욱, 안종현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가들은 전시 또는 리뷰 참가와 더불어 연계 출판물을 발간한다.

홍보용 이미지 목록

No.	작품 이미지	캡션 및 상세정보
1		<p><i>Memories Full of Forgetting #02,</i> Mixed media (digital print on fabric, paper), Dimensions variable, 2017 ©정승원Seungwon JUNG</p>
2		<p><i>Memories Full of Forgetting #03, Installation view,</i> Mixed media (digital print on fabric, paper), Dimensions variable, 2017 ©정승원Seungwon JUNG</p>
3		<p><i>Bark 2/54,</i> Mixed media (digital print on fabric, paper), 28x28cm, 2018 ©정승원Seungwon JUNG</p>
4		<p><i>Bark 11/54,</i> Mixed media (digital print on fabric, paper), 28x28cm, 2018 ©정승원Seungwon JUNG</p>

<p>5</p>		<p>Construction Site 10, Pigment print, 2012 ©정지현Jihyun JUNG</p>
<p>6</p>		<p>Construction Site 04, Pigment print, 2012 ©정지현Jihyun JUNG</p>
<p>7</p>		<p>Construct 010_5652, Pigment print, 2017 ©정지현Jihyun JUNG</p>
<p>8</p>		<p>Reconstruct 101_4911, Pigment print, 2020 ©정지현Jihyun JUNG</p>
<p>이미지 요청 및 문의 02-410-9124 02-418-1315 press@photomuseum.or.kr</p>		<p>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다운로드 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 단체전 정승원 · 정지현 폴더</p>

전 시 개 요

전시제목 :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 단체전 《정승원 · 정지현》

전시기간 : 2021년 6월 18일(금) ~ 8월 15일(일)

전시장소 : MoPS 한미사진미술관 삼청별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11)

전시작품 : 사진, 혼합매체 작품 20여 점

주 관 : 한미사진미술관

기 획 : 한미사진미술관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사이언스

관람시간 : 매일 10:3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 람 료 : 무료

※ 문 의 : MoPS 대표전화 02-722-1315, photo@photomuseum.or.kr

※ 이 전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개막 행사 없이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는 한미사진미술관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접속

ID: hanmimuseum / PW: 1315 로그인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2021 단체전 정승원 정지현 폴더